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 논술고사자료

기출문제, 출제의도 및 해설

2014. 11. 23(일) 오전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자료 2>

1963년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로젠탈 교수는 ‘동물 대상 실험을 통해 연구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로젠탈은 실험심리학 전공 학생들에게 “미로 바보”라 이름 붙인 쥐들과 “미로 수재”라 이름 붙인 쥐들을 제공한 뒤, “미로 바보” 쥐들은 학습 효과가 없는 쥐들이지만, “미로 수재” 쥐들은 처음에 보통 쥐와 비슷한 것 같아도 금방 학습 효과를 보이는 똑똑한 쥐들이라고 얘기해 줬다. 사실, 두 종류의 쥐들은 무작위로 선택된 쥐들이었다. 5일 동안 진행된 연구 결과는 놀라웠다. “미로 수재” 쥐들이 실제로 미로 통과 과제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학습 성과를 보인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로젠탈은 “미로 수재” 쥐들이 얼마나 똑똑한지가 아니라 학생들이 “미로 수재” 쥐들을 얼마나 우호적으로 다루었는지가 결과의 결정요인임을 발견했다.

이어지는 연구에서 로젠탈은 미국에서 20년 이상 초등학교 교장을 지낸 레노어 제이콥슨과 함께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한 반에서 20퍼센트 정도의 학생을 뽑았다. 그 학생들의 명단을 교사에게 주면서 ‘지적 능력이나 학업 성취의 향상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라고 믿게 하였다.

8개월 후 이전과 동일한 지능 검사를 다시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명단에 속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평균 점수가 높게 나왔다. 뿐만 아니라 학교 성적도 크게 향상되었다. 명단에 오른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기대와 격려가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 연구 결과는 교사가 학생에게 거는 기대가 실제로 학생의 성적 향상에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Robert Tauber, *Self-Fulfilling Prophecy*;  
OO출판사, 고등학교 『사회·문화』

[문제 1] <자료 1>과 <자료 2>의 요지를 각각 서술하시오. (200자 내외, 100점)

[문제 2] <자료 1>의 내용에 근거하여 <자료 2>에 제시된 효과의 한계를 논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 뒷면에 계속 >

## I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자료 3>

문학작품이나 우리가 사는 세계를 아무리 개인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론에 ‘오염’되지 않은 채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해석은 이미 그 자체로 이론적인 여러 가정과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근거하고 있다. 그것이 이론적인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이미 내면화하여 마치 자연스러운 것인 양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특정한 이론적 틀에 근거하지 않은 해석이란 없다.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는 이론적 가정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와 같은 가정들은 분명 존재한다. 문학작품에 행해지는 해석이 전적으로 개인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와 같은 해석은 결단코 문학, 교육, 언어 및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곧 우리 문화에 너무나 깊이 스며든 나머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확신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아울러 명심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다. 일단 비평이론에 익숙해지고 나면, 문학을 감상하는 능력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대된다는 점이다. 훈련을 통해 이론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말은 인간의 경험과 온갖 사상 세계를 더욱 폭넓고 깊이 있게 사고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뜻이며, 그렇게 되면 문학작품에 담긴 강렬한 밀도와 다채로운 짜임새, 의미의 미묘한 차이들을 한층 더 음미할 수 있다. 이론을 통해 내가 읽는 모든 것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그것을 즐기고 평가하는 능력도 더 향상되는 것이다.

Lois Tyson, *Critical Theory Today*

### <자료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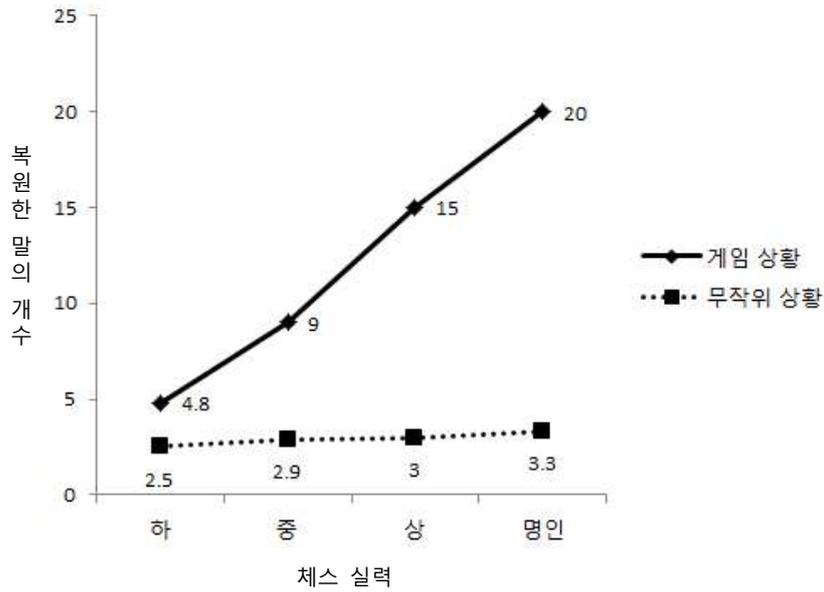
프레임은 인간의 실재를 이해하도록 해주며 때로는 우리가 실재라고 여기는 것을 창조하도록 해주는 심적 구조이다. 즉, 프레임은 우리의 아이디어와 개념을 구조화하고, 사유방식을 형성하며, 심지어 지각 방식과 행동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 문법 연구에서도 프레임 없이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널리 퍼져있다. 하지만 많은 언어학자들은 기존 연구 프레임에 기대는 대신에 언어 자체의 표현 방식에 집중하여 현상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연구 대상 언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싶다면, 기존의 문법 프레임은 피해야 할 편견임을 유념해야 한다. 문법 프레임은 언어 현상이 어떠해야 하고, 어떠할 수 있고, 어떠할 수 없는지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한다. 그리고 일단 이런 편견이 만들어지면 그 제약에서 벗어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필요한 것은 언어 자료와 합리적 사유에만 의거해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고, 현상들 사이의 연결 관계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생각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며, 결국 한계가 있더라도 기존 프레임 안에서 분석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나는 프레임 없는 문법 연구가 훨씬 더 많이 존재해왔음을 보여주려 한다.

George Lakoff, *Thinking Points*;

B. Heine & H. Narrog (eds.), *The Oxford Handbook of Linguistic Analysis*

<자료 5>

체스 명인은 체스판 위의 말들을 5초 정도만 봐도 말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해 낸다. 그루트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보통 사람보다 우수한 체스 명인의 단기기억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에 반해 체이스와 사이먼은 이 능력이 탁월한 기억력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체스판 위의 말들을 무작위로 배열할 경우에는, 체스 명인 또한 보통 사람처럼 말의 위치를 잘 기억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체스 명인이 말의 위치를 기억해 복원해내는 능력은 게임 중 말들이 체스판 위에서 그룹을 지으며 만들어가는 구조를 인지하는 능력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아래 그래프는 체스 실력에 따라 체스판 위의 말의 위치를 평균 몇 개나 기억해 내는지를 보여준다. 체스판 위의 말의 위치는 게임 상황일 때와 무작위 상황일 때로 나누어지며, 체스 실력은 “하-중-상-명인”으로 구분된다.



W. Chase & H. Simon, “Perception in Chess” ;  
 B. Baars & N. Gage, *Cognition, Brain and Consciousness*

[문제 3] <자료 3>과 <자료 4>를 프레임에 대한 태도의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시오. (400자 내외, 180점)

[문제 4] <자료 3>을 활용하여 <자료 5>에 제시된 체이스와 사이먼의 주장을 그래프의 수치를 근거로 논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출제 의도 및 해설

<2014. 11. 23(일), 오전 09:00 ~ 11:00>

## 1. 출제 의도

한국외국어대학교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논술고사는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을 선정하여 문제를 구성하였고, 주제와 관련된 글의 요지를 파악하고, 비교평가, 비교분석, 적용추론 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Part 1에서는 “학습된 무기력”과 “피그말리온 효과”를 핵심 논제로 하여 한 개의 국문 <자료>와 한 개의 영문 <자료>로 [문제]를 구성했다. [문제]는 국문 및 영문 <자료>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 두 <자료>의 상관관계를 적절하게 읽어 영문 <자료>에 제시된 “학습된 무기력”의 개념에 근거하여 국문 <자료>에 제시된 “피그말리온 효과”의 한계를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자료 1>은 영문으로 작성되었다. 영문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지식과 정보가 유례없이 빠르게 유통되는 지구촌 시대에 적합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구촌 의사소통의 매체가 되는 외국어 실력, 특히 영어 실력의 선취가 필수적이라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교육정신 때문이다. 영문 <자료>는 어휘, 통사구조, 개념과 관련하여 난이도 측면에서 현재 고등학교 교과과정 영어 교과서 수준을 벗어남이 없는 정도이고 분량도 200단어 내외여서 고등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영어를 학습한 학생들은 무난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글이다.

Part 2에서는 “프레임(틀)”을 핵심 논제로 하여 그래프 한 개를 포함한 세 개의 <자료>로 [문제]를 구성했다. <자료 3>은 문학 작품의 감상과 해석에서 프레임(문학이론)의 긍정적 역할을 설명한 글이고, <자료 4>는 문법 프레임의 부정적 측면을 다룬 글이고, <자료 5>는 (전문가) 프레임과 관련된 그래프와 글이다. [문제]는 동일한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는 글들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적용하여 추론한 결과를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 2. 해설

### 가. 자료 출전

논술고사에 활용된 국문과 영문 자료는 원저에서 관련 내용을 추출한 후, 이를 출제의도에 부합하게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자료>의 출전은 다음과 같다.

<자료 1> 출처 : Education Portal 외

<자료 2> 출처 : Robert Tauber, *Self-Fulfilling Prophecy*;  
OO출판사, 고등학교『사회·문화』

<자료 3> 출처 : Lois Tyson, *Critical Theory Today*

<자료 4> 출처 : George Lakoff, *Thinking Points*;

B. Heine & H. Narrog (eds.), *The Oxford Handbook of Linguistic Analysis*

<자료 5> 출처 : W. Chase & H. Simon, “Perception in Chess”;

B. Baars & N. Gage, *Cognition, Brain and Consciousness*

## 나. 각 자료 요지

### <자료 1>

실험그룹 1의 개는 레버를 누르면 전기 충격이 중단되는 것을 학습하였고, 그룹 2의 개는 동일한 전기 충격이 가해지나 스스로는 어떤 반응으로도 이를 통제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그룹 2의 개들은 무기력을 학습했고, 만성 우울증과 유사한 증상들을 보였다. 통제할 수 없는 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학습된 무기력의 원인이다.

### <자료 2>

‘피그말리온 효과’로 알려진 하버드 대학의 로젠탈 교수의 연구 결과를 소개한 글이다. 쥐를 대상으로 한 미로 통과 실험에서 연구자가 쥐들을 얼마나 우호적으로 다루었는지에 따라 쥐들의 학습 성과가 달라지며, 교육현장에서 학생을 대할 때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남을 말하고 있다. 이 실험의 의미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기대와 격려가 학생에게 긍정적인 학습 성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 <자료 3>

문학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특정한 이론적 틀에 근거하지 않은 해석이란 없다. 때로 문학작품에 행해지는 해석이 전적으로 개인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작품에 대한 해석이 우리 문화에 너무나 깊이 스며든 나머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일 뿐이다. 일단 비평이론에 익숙해지고 나면, 문학을 감상하는 능력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대된다. 이론을 통해 내가 읽는 모든 것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그것을 즐기고 평가하는 능력도 더 향상되는 것이다.

### <자료 4>

기존의 문법 프레임은 언어 현상이 어떠해야 하고, 어떠할 수 있고, 어떠할 수 없는지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한다. 하지만 연구 대상 언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싶다면, 기존의 문법 프레임은 피해야 할 편견임을 유념해야 한다. 언어학자는 언어 자료와 합리적 사유에만 의거해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고, 현상들 사이의 연결 관계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 <자료 5>

체스 명인은 체스판 위의 말들을 5초 정도만 봐도 말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해 낸다. 체이스와 사이먼에 따르면, 체스 명인이 말의 위치를 기억해 복원해내는 능력은 게임 중 말들이 체스판 위에서 그룹을 지으며 만들어가는 구조를 인지하는 능력 때문이다. 왜냐하면 체스판 위의 말들을 무작위로 배열할 경우에는, 체스 명인 또한 보통 사람처럼 말의 위치를 잘 기억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 다. 내용적 측면

- ① 한국외대의 키워드인 국제(international studies), 문화(cultural studies), 언어(language studies) 연구를 내용요소로 그대로 유지한다.
- ② 한국외대의 통합논술 교육의 목표인 1. 통합적 통찰 능력 및 인식 능력의 함양, 2. 통합적 비판 능력과 판단 능력 고양, 3. 전문인으로서 적합한 통합적 탐구 능력과 통합적 적성 개발, 4. 올바른 가치관 정립, 5. 정보화 시대의 통합적 정보 취득 역량 함양, 6. 논리적이면서도 창의적인 표현 능력 개발의 취지를 고려하여 자료를 선정하였다.
- ③ 새로운 출제 지침으로 고등학교 교과서 언어, 외국어, 사회탐구 지문에서 다른 주제를 활용한다.
- ④ 문학, 비문학 지문을 고루 활용하되 제시문은 개념과 쟁점을 도출할 수 있는 지문을 활용한다.
- 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 ⑥ 실험결과, 비평, 개념 적용 사례의 다양한 범주의 내용과 도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였다.
- ⑦ 기본적인 학습 역량에 주안점을 두어 앞의 두 문제에서는 요지 파악, 비판 평가를, 뒤의 두 문제에서는 비교분석, 적용 및 추론능력을 물을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 라. 형식적 측면

- ① Part 1에서는 국문, 영문 자료 하나씩으로 구성하고, Part 2에서는 국문 자료 세 개로 지문을 구성한다.
- ② 첫 번째 문항은 핵심어(key word)가 아닌 요지를 서술하도록 출제하였다.
- ③ 두 번째 문항은 비판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자료 1>의 내용에 근거하여 <자료 2>에 제시된 효과의 한계를 논하도록 출제하였다.
- ④ 세 번째 문항은 <자료 3>과 <자료 4>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도록 출제하였다.
- ⑤ 네 번째 문항은 <자료 3>의 내용을 적용하여 <자료 5>에 제시된 그래프와 내용에 대해 추론하도록 출제하였다.